

## 사파티스타 운동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일고

조영실(서울대)\*

- I. 들어가는 말
- II. 사파티스타와 원주민 공동체의 관계
- III. '좋은 정부 위원회'와 마야 철학
- I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원주민 여성(클리버, 34)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2001년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대장정 이후 대정부 협상 창구를 모두 닫아놓은 채이지만 원주민 권리법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은 1983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창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3년 11월 17일 좌익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치아파스의 원주민들과 함께 만든 일종의 비밀결사

---

\* Young-Shil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 & Literature, choysh00@snu.ac.kr), "On the philosophical bases of Zapatista Movement of National Liberation."

조직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였다. 이 단계를 사파티스모 1기라고 할 수 있겠다.<sup>1)</sup> 그 후 지속적으로 조직원을 확장시켜오다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일을 기해 마침내 공식적으로 존재를 선언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지난해는 결성 20주년이었고 이를 기념하여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축제를 벌였다. 이에 앞서 8월에는 기존의 ‘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총사령부(CCRI-CG: Comité Clandestino de Revolución Indígena-Comandancia General)’를 대신하여 치아파스 원주민 공동체를 다스릴 원주민 자치정부로 ‘좋은 정부 위원회(JBG: Juntas de Buen Gobierno)’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이 위원회가 발족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세계 언론들은 이것이 사파티스타 해방군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EZLN는 공식 성명서나 마르크스의 편지들을 통해 군 조직의 해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사파티스타 운동의 일진보임을 확인했다.

EZLN은 2001년 2월 치아파스에서 멕시코시티까지의 보름에 걸친(정확하게는 2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평화 대장정 이후 멕시코 시티 대광장에서 20만 시민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원주민 권리법 의결을 촉구했다. 그 직후에는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라칸돈 열대우림지역에서 침묵 투쟁을 벌이면서 인터넷 사이트(<[www.ezln.org](http://www.ezln.org)>)와 고유 방송국을 만들어 세계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멕시코 정부의 부당성과 기득권층의 횡포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sup>2)</sup>

국내에서 사파티스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98년과 1999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성형은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1999)에서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개방의 정치적 효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파티스타 봉기는 북부 공업지대 및 마킬라도라 산업공단과 낙후한

1) 르 보는 1980년대 초 좌파 민족해방군(ELN) 세력이 치아파스에 들어온 시기를 사파티스타 1기로, 1994년 봉기를 2기로, 그 이후 무장단체로서의 성격을 탈색시키고 정치적 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하여 국제사회에 연대의 가능성을 넓힌 단계를 3기로 보았다(Le Bot, Yvon 1997, 75-76).

2) 간략한 연대기는 부록을 참조할 것.

남부 농업지대로 대별되는 두 개의 멕시코 현상이 낳은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346). 사파티스타에 관한 또다른 글로는 신정환의 「마르코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사이버전쟁」(1999)과 사파티스타 운동에서 멕시코 원주민 담론을 고찰하고 있는 박병규의 「사파티스타 투쟁의 역사적 의의」(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의 관심은 대부분 사파티스타 운동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놓여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기이자 대립점으로서 사파티스타 봉기와 그 존재가 가지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sup>3)</sup>

이러한 몇 편의 연구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소외되어 있던 테마인 사파티스타 운동의 철학적 바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사파티스타의 봉기가 멕시코의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정책과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구도 속에서 갖는 대항적 의미, 그리고 사이버를 통한 대안적 혁명으로서 갖는 의미 등은 사파티스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기 이후 10년 역사를 통해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온 것에 비하면, 좌파 혁명가들이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배운 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철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좌파적 사상 전통 외에 어디에 정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치아파스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3) 번역된 사파티스타 연구서로는 해리 클리버의 『사빠띠스따. 신자유주의, 치아파스 봉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1998)가 있다. 지난달 출간된 베르트랑 데 라 그랑주와 마이테 리코 공저의 『마르코스: 21세기 게릴라의 전설』(2003)은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마르코스에 대한 이상화를 경계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고찰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입장은 신비화되고 영웅화된 마르코스에 대한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파티스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 쉬운 역서로 '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 총사령부'의 성명서들과 마르코스의 편지글들을 번역한 『분노의 그림자. 멕시코 한 혁명가로부터 온 편지』(1999), 원주민 공동체와 사파티스타 좌파혁명가들 사이의 교감과 공생을 우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2001), 그리고 후아나 폰세 데 레온이 펴낸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2002) 등이 있다.

이 마야문명의 후예라는 점과, 사파티스타 운동이 추구하는 정의, 자유, 민주를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 획득의 과제가 근본적으로는 마야인의 정신에서 발원되었음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곧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우주관과 사파티스타 운동이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지난해 발족한 ‘좋은 정부 위원회’에 대한 고찰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현 멕시코 정부가 원주민 권리법의 쟁취를 보장해 주지 않자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이를 직접 실현하고 실천하기로 결정했고, 그 업무를 관장할 지역 자치정부로 세운 것이 곧 ‘좋은 정부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EZLN의 사령부였던 다섯 개의 ‘아과스칼리엔떼스(Aguascalientes)’ 대신 ‘좋은 정부 위원회’의 본부로서 탄생한 ‘까라콜(Caracol)’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동 모양의 이 건물은 까라콜의 신화적 기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까지는 사파티스타의 철학적 원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분석적인 논문은 용이하지 않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본고가 문화 연구적 성격이 강함을 고려하여 다소 평이한 글의 형식을 취했음을 밝혀둔다.

## II. 사파티스타와 원주민 공동체의 관계

### II.1. “민족해방운동(ELN)”과 치아파스의 만남

“우리는 서로 발견했고, 서로 다른 두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사적인 지도가 필요했고, 우리는 사회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했다.”(Peacenet 1994년 5월 11일자에 실린 마르코스의 인터뷰) (폰세 데 레온, 717)

치아파스는 원래 이웃나라 과테말라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823년 “생쥐 머리보다는 사자 꼬리가 낫다”는 원칙을 앞세운 지역 엘리트들에 의해 과테말라에서 이탈하여 멕시코에 합병되었다. 그리

고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10만 명가량의 과테말라 난민들이 과테말라 정부군의 대학살을 피해 치아파스로 이주해왔다(Le Bot, 23-24).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치아파스 주가 유카탄 반도와 더불어 멕시코 내의 마야 지역임을 확인시켜 준다. 대부분의 원주민 지역은 아즈텍의 후손들이지만 남동부 지역은 마야 문명권과 인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소수의 친족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소 방목과 커피 플랜테이션 지역이었다. 커피와 옥수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삼림 자원 및 수자원이 특히 풍부했다. 이러한 풍족한 자연적 조건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즉, 일찍부터 불균등한 토지 분배로 악명이 높았고 그럼에도 정부의 농지개혁 정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는 사파티스타 봉기 이전 몇 년 간 치아파스의 토지를 재분배할 목적으로 거주민들을 라칸돈 정글로 이주하도록 설득했다. 그곳에서 삼림 벌목과 농작물, 커피, 소 방목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정책은 토지 분쟁을 둘러싼 길고 유혈적인 역사를 낳아 몇 백 명에 이르는 공동체 지도자들이 살해당했다. 사실 이러한 계층 갈등은 치아파스 주의 엘리트 통치자들의 인종주의 때문에 더욱 심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치아파스에서의 인종 차별은 멕시코 다른 원주민 지역들에 비해 훨씬 명백했고, 그에 따라 중심도시 산크리스토발은 말 그대로 아파르트헤이트 도시<sup>4)</sup>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치아파스 주의 상황은 여러 노선의 좌파 혁명가들이 이 지역을 혁명의 전초로 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파티스타군의 전신인 민족해방운동(ELN) 혁명가들이 처음 치아파스 주에 온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다. 사파티스타 혁명가들이 처음 치아파스에 왔을 때 그들 교육의 중심은 역사 교육과 언어 교육이었다.<sup>5)</sup> 이전까지 공식 역사에 의해 고유의 역사가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치아파스 원주민들

4) Jonathan Fox(1994), "The roots of Chiapas", Boston Review. A political and literary forum, 1994, April/May, <http://www.bostonreview.net/BR19.2/fox.html>

5) Thomas Benjamin(2000), "A time of Request: History, the Maya Revival, and the Zapatista Rebellion in Chiapas",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Vol. 105, No. 2, 2000, Apr, 18, <http://www.historycooperative.org/journals/ahr/105.2/ah000417.html>.

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고, 나아가 자신들 고유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역사는 한 집단의 과거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다. 따라서 치아파스 원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멕시코 역사와 마야 역사를 알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한편, 원주민 공동체의 혁명적 교화를 위해 치아파스 주에 침투한 좌파 혁명가들은 공동체의 거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야 했다. 서두의 인용문은 이들이 서로 뜻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곧, 혁명가들은 혁명의 대상으로 삼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민중적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원주민들은 정부군이나 지방 지주들을 위해 복무하는 무력 집단인 백색 경비대의 탄압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혁명가들로부터 군사적 훈련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사파티스타가 치아파스에 온 시기는 이 지역에서 소를 방목하는 목장이 늘어나고 그와 함께 폭력과 야만, 주의 탄압이 증가한 시기와 일치했다. 소유지를 목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더욱더 많은 땅이 필요해 지자 지주들은 마을에 침입해 에히도(ejido) 땅을 빼앗았다. 그리고 원주민과 농민 조직이 힘을 결집해 항의하자 이들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계획적으로 살해하거나 감옥에 처넣었다. 원주민 공동체가 지주에게 고용된 백색 경비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위대를 만들려고 마르크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폰세 데 레온, 717).

이러한 구체적인 상호 필요성은 곧 두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서로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특히 사파티스타 해방군은 원주민 공동체의 오랜 전통 속에 배어있는 철학과 우주관으로부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치아파스에 올 때 사회주의 이념을 사상적 무기로 가져왔으나 공동체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자신들이 원주민을 교화시키고 훈련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원주민들의 철학으로부터 배움으로써 혁명의 본래적 목표를 제대로 확립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1983년 초창기의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가졌던 농민혁명사상의 레

닌-마오주의에 기반한 것이었고, 이들이 추구하는 ‘참’의 모양은 원주민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는 상이했다. 민족해방군의 사상은 이 불법적인 사고에 기반한 것이었고,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는 서구식 발전모델과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이어서 오히려 원주민 공동체가 추구하는 ‘참’의 반대향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원주민 공동체와 사파티스타 해방군 사이의 상호 교감과 감응의 과정은 마르크스가 쓴 『마르크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2001)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혁명군 부사령관 마르크스와 원주민 주술사인 안토니오 노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원주민 우주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사파티스타 운동이 정치경제학적 목적 외에도 정신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과 이 철학이 마야 문화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ZLN의 성명서들과 마르크스의 편지들, 그리고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공통 요소들에 주목할 것이다. 먼저 성명서에서 ‘민중의 수호자, 민중의 심장’으로 언급되는 ‘보탄 사파타’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스키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와 그 검정 색깔이 의미하는 바를 짚어 보겠다. 이를 통해 사파티스타 운동의 기저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이 마야의 세계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2. 보탄 사파타(Votán-Zapata): 신화와 역사의 결합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걷고 있습니다. 민중의 수호자이며 민중의 마음인 보탄 사파타. 밤의 파수꾼. 산의 주인. 우리. 민중의 수호자이며 민중의 마음인 보탄 사파타. 그는 한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니면서 모든 사람입니다(폰세 데 레온, 101).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내세운 보탄 사파타라는 이름은 1994년 4월 10일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의

암살 75주기를 기리는 성명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후부터 그들은 보탄 사파타를 ‘희망의 철학자(filósofo de la esperanza)’(Michel 2001)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뒤에 존재하는 이가 보탄 사파타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보탄 사파타는 과연 누구인가?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자기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부터 이미 멕시코 혁명기 남부 농촌지역 출신의 혁명가였던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은 표명했기 때문에 사파타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된다. 사파티스타 해방군은 사파타의 토지정책이었던 ‘아얄라 계획’<sup>6)</sup>을 다시 제기하였고, ‘토지와 자유’를 주장한 사파타의 사상이 곧 자신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사파타라는 이름과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만 또 다른 인물 보탄은 누구인가? 그리고 보탄과 사파타는 어떤 관계인가?

보탄은 마야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다. 마르코스가 쓴 우화소설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에서 안토니오 노인이 마르코스에게 그 신화를 자세히 들려준다. 안토니오 노인은 치아파스 원주민 공동체 마을의 주술사였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는 혁명 운동 정신과 마야 원주민 정신의 교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탄 신이 화제에 오르게 된 것은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노인이 혁명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였다. 마르코스는 자신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멕시코 혁명, 사파타와 판초 비야(Pancho Villa), 토지와 불평등, 빈곤과 무지, 질병, 억압 등의 테마를 거론한다. 그러나 사파타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르코스의 설명이 끝나자 안토니오는 마르코스의 역사적 설명과는 상이한 신화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안토니오 노인이 들려준 신화는 보탄(Votán)과 이칼(Ik'al)이라는 두 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6) ‘아얄라 계획’은 프란시스코 마테로에게 배신당한 사파타의 모렐로스 혁명평의회가 1911년 11월 발표한 것으로, 지주와 정치인들에게 찬탈당한 토지와 목재와 물을 원래 소유자인 마을 공동체와 시민들에게 즉각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종국, 140).



안토니오 노인에 따르면 이칼과 보탄은 둘이 하나의 몸을 지닌 신이었다. 이쪽 신이 뒤돌아서면 저쪽신의 모습이 보이고 저쪽 신이 뒤돌아서면 이쪽 신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형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 몸에 붙어있지만 서로 대립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신이었다. 즉 보탄은 빛의 신이고 이칼은 어둠의 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서로 둘은 하나였고 ‘같은 이’였다. 서로가 각자 상대방 신의 존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마르코스 2001, 82).<sup>7)</sup>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자신들은 보탄 사파타이고, 자신들 뒤에 있는 존재가 보탄 사파타라고 말할 때 보탄 신의 신화적 정체성은 이상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탄이 단순히 마야 신화 속의 신이라는 사실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보탄과 이칼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있다. 그 방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질문하면서 걷는다(caminar preguntando)’(82)는 개념이다.

처음에 두 신은 늘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서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칼 신은 “밤에는 아무 일이 없군”이라고 중얼거렸고 보탄 신은 “낮에도 아무 일이 없지”라고 중얼거렸다. 그 때 둘 중 누군가가 “우리 걸어보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어떻게?”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어디로?”라고 물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조금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 신이 질문하고 다른 신이 그 질문을 받아 대답할 때 이루어졌다. 움직인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질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신이 동시에 움직이려고 할 때는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신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은 “함께, 그러나 합의를 보아 따로”(84)라는 해답을 도출하게 되

7) 보탄 신에 대한 언급은 『마야의 예언』에도 등장한다. 1773년 잃어버린 도시 팔렌케를 발견한 오르도네스 신부는 보탄이라는 신에 의해 인도된 민족이 대서양을 건너와 팔렌케를 건립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탄은 뱀으로 상징되는데, 마야 부족에게서 보이는 방울뱀 숭상도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길버트 & 코트렐, 39, 173).

었다. 그리하여 밤에는 어둠의 신인 이칼이 걷고 낮에는 빛의 신인 보탄이 걷기로 했다.

이칼과 보탄 신화의 내용은 그들이 질문을 통해 움직였다는 것, 질문이 서로 교대로 이루어질 때 움직임이 가능했다는 것, 동시에 움직이고자 할 때는 움직임이 불가능했다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지막에 언급된 ‘합의’의 부분은 사파티스타 운동이 추구하는 혁명 방식이기도 하다. 즉, 사파티스타 운동은 1983년 치아파스에 온 혁명지도자들이 초기에 선택한 방식,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도와 지휘에 의한 혁명 방식과 영원히 결별하고, 논의와 합의에 의해 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사파티스타 해방군은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회의’라는 방식을 접하면서 참된 지도 방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체회의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러 가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의 합의에 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진정한 혁명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탄과 이칼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보탄과 이칼 신화에 따르면 두 신이 함께 걸음을 옮겨 치아파스 산악지대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 현현체가 바로 에밀리아노 사파타였다고 한다. 두 신은 오랫동안 함께 걷는 시간을 통해 동일자이자 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고, 또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하나가 되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사파타였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노인은 따라서 사파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사파타가 역사 속의 인물임을 넘어 멕시코 남동부 산악지대의 원주민 공동체에게 신적인 존재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sup>8)</sup>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자신들과 일체감을 표현하는 ‘보탄

사파타'라는 이름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고, 신화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인물의 결합을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이름이 그들의 혁명적 반란에의 의지를 추동하는 배후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 II.3. '얼굴 없는 사람들'의 의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과 원주민 공동체의 접합을 확인하게 해주는 또 다른 요소는 그들의 스키마스크 복장이다. 매체를 통해 보는 스키마스크를 쓴 사파티스타의 모습은 먼 멕시코 치아파스 산악지대의 낭만적인 혁명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쉽다. 특히 오늘날처럼 혁명이나 혁명가의 코드가 일종의 대중적 우상의 코드로 변질되기 쉬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복면은 그의 얼굴, 곧 정체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신비감을 자아내는 데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스키마스크는 그런 신비감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스키마스크를 쓰게 된 것은 1993년 11월 17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창설 10주년 기념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주요 간부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공식 회의를 마친 후 외부 세계에 대해 무엇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릴 것인지 의논하게 되었다.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스키마스크를 쓰자고 제안했고, 간부들은 그의 생각을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스키마스크인지 커다란 손수건인지 복면인지 탈인지가 아니다. 핵심은 '얼굴을 가린다'는 사실에 있다. 사파티스타 해방군은 왜 얼굴을 가리는가? 그것은 사파티스타 스스로도 밝힌 바 있듯이, 그 자신들과 모든 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이다. 또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 정체

8) 역사가 안토니오 가르시아 데 레온(Antonio García de León)에 따르면 보탄은 치아파스 중 원주민 부족들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토지를 지켜주는 역할을 맡은 신이라고 한다(Le Bot, 74 재인용).

성으로 결속되고 연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에르모 미셸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맨 얼굴을 드러내면 그저 한 개인의 얼굴만 보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얼굴을 가림으로써 여자, 농민, 노동자, 어린이 등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오마이 뉴스』, 2003년 10월 10일).

미셸 교수는 모든 이가 하나일 수 있다는 사파티스타의 사상을 고대 마야인들의 공동체적인 우주관과 연결짓는다. 즉, 고대 마야인들은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후손인 치아파스 주민들은 이를 계승하여 사파티스타 운동의 정신으로 이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티스타들은 스키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얼굴 없는 사람들(hombres sin rostro)’이 되어 다른 억압받는 모두와 하나가 되었다.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이름을 잊은 채, 역사 속에서 얼굴이 없는 듯 보이지 않던 사람들, 이름이 없는 듯 불려지지 않던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에는 스키마스크가 검은 색인 이유도 나타나 있는데, 숯검정의 자기희생성이 그 핵심이다. 사파티스타 해방군들이 스키마스크를 쓰기로 결정한 후 그 색깔을 의논하던 가운데 마르코스에게 일전에 타다 만 숯검정 나뭇가지를 지켜보았던 기억을 떠올려 검정색을 제안한다. 안토니오 노인에 따르면 “검정으로 뒤덮인 것들은 늘 이 세상에 부족할 빛과 온기를 감추고 있다.”(마르코스 2001, 60) 곧 타다 만 숯검정은 다시 불을 지피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이 되어 자신을 태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살기 위하여 죽는 것”(65)과도 같으며, 사파티스타의 투쟁이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확인하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검정색 스키마스크는 그들 투쟁의 목적이 “모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Para todos todo, para nosotros nada.) 원하지 않는 데 있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 III. ‘좋은 정부 위원회’의 의미와 까라콜<sup>9)</sup>

#### III.1. ‘좋은 정부 위원회’: 복종하면서 다스린다

결성 20주년 기념 축제나 ‘좋은 정부 위원회’ 발족과 같은 최근의 움직임은 사파티스타 운동이 침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시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힘을 강화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EZLN은 ‘좋은 정부 위원회’를 발족시킨 주된 이유의 하나로 사파티스타 운동과 차아파스 원주민 공동체의 현주소에 대한 외부 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국제 시민사회와 관련된 사안들에 훨씬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 총사령부’보다는 행정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좋은 정부 위원회’는 원주민 자치주들의 인권과 복리를 위해 애쓰는 말 그대로의 지역 정부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부 위원회(Juntas de Buen Gobierno)’는 사파티스타 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EZLN이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가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자치주들과 외부 ‘시민사회’<sup>10)</sup> 사이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대외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변화였던 것이다.

우선 ‘좋은 정부 위원회’라는 명칭이 현 멕시코 정부를 ‘나쁜 정부(mal gobierno)’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립이자 대안의 정부라는 의미에서 붙인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대안의 정부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좋은’ 정부라는 의미는 아니다. EZLN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래 협상의 상대가 되어온 공식 정부는 언제나 ‘나쁜 정부’였다. 그리고 EZLN은 멕시코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질

9) ‘까라콜(Caracol)’은 ‘좋은 정부 위원회’가 활동할 청사 건물에 해당한다.

10) 사파티스타가 말하는 시민사회란 아주 일반적인 보통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주장에 호응하고 공명하는 외부 세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존 홀로웨이, 317).

서에 편입되기 위해 경주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리하여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한 ‘산 안드레스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조인된 합의 사항조차도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런 정부의 태도에서 기대할 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들이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이고 정당들과의 대화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일종의 자치정부를 수립시킨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좋은 정부 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 사파티스타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통치는 EZLN에 의해 이루어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방군 산하의 CCRI-CG(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총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CCRI-CG는 1983년 치아파스에 온 혁명운동가들과 원주민 공동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협력 형태의 집단 지도부이고, EZLN은 이 지도부의 명령을 받는 군대라고 할 수 있다. CCRI-CG의 구성원은 민주적인 마을 회의를 통해 민간인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모임을 소집하고 대외적인 만남을 추진하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CCRI-CG는 군사조직이어서 사파티스타 지역 외부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었다. 지난해 8월의 발표문에서 마르코스도 밝히고 있듯이 군대가 할 일은 통치가 아니라 방위이기 때문이다(“Los ejércitos deben usarse para defender, no para gobernar”)(<http://chiapas.mediosindependientes.org>). 그에 비해 ‘좋은 정부 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적인 정부 형식이다. CCRI-CG는 7월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히기를 30개의 자치주들이 마르코스 부사령관이 EZLN의 대변자 역할 외에도 자신들 자치주들의 대변인 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6항). CCRI-CG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성명서가 발표된 날(7월 19일)부터 CCRI-CG의 이름으로 된 글뿐만 아니라 사파티스타 자치주들의 이름으로 된 글들도 마르코스의 서명을 함께 달고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것은 CCRI-CG와는 별개의 원

주민 자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후 7월 28일 발표된 글에서는 ‘좋은 정부 위원회’가 공동체들의 자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치주들과 국제사회 사이의 직접적인 교량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라고 표명하기에 이른다(“Comunicado del CCRI-CG”, <<http://www.ezlnaldf.org/comunica/030719.htm>>).

그 결과 치아파스 지역에는 모두 다섯 개의 ‘좋은 정부 위원회’가 들어섰는데, 그 하나 하나는 각 반군 자치위원회(Consejos Autónomos Rebeldes Zapatistas)에서 선출된 한두 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CCRI-CG의 본부인 아파스칼리엔테스들이 있던 지역에 ‘좋은 정부 위원회’의 청사로 까라콜들이 건조되었고, EZLN은 이 자치주 지역에서 예비부대와 사령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CCRI-CG의 성명서와 마르코스 부사령관의 추가적인 설명들에서 발췌한 다음 인용문은 ‘좋은 정부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해 주고 있다.

좋은 정부 위원회는 지역 차원의 원주민 자치정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여러 주들의 발전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공동체들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에 화답하고 동행하고 통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자치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자치위원회에 신고되는 고발들을 처리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 좋은 정부 위원회는 사파티스타 반군 지역의 다스리는 자가 복종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Boletín No. 2, 13 de Agosto, 2003, 치아파스 독립미디어센터).

인용문 말미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정부 위원회’는 ‘복종하면서 다스리는(mandar obedeciendo)’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선출된 대표자는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집된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스림 자체가 복종에서 비롯된다는 이 관념을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사조직과는 별도의 공동체 민간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복종하면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좋은 정부 위원회’의 목적을 나타내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파티스타 운동이 발족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해방의 실천방식이기도 하다.

EZLN은 일찍이 그 스스로의 권력 획득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표명

했는데, 폴 킹스노스에 의하면 이는 권력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도전 의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파티스타는 권력의 탈집중화가 풀뿌리 민중들의 영역까지 최대한 권력이 이양되어 민중들이 실제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보장할 때에만 달성된다고 보았다(<http://cham.jinbo.net/maybbs>). 그렇게 보자면 자치의 문제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목표인 것이다.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통치야말로 이들이 획득해야 할 원칙이다. 이들에게 자치는 고립되고 낙오된다는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는 모든 이들이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진정한 감독과 관리를 뜻하며, 실제적인 운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좋은 정부 위원회’와 같은 자치 정부의 구성은 사파티스타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 이 위원회가 발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외부의 언론들은 EZLN의 공식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변화에 대한 조짐과 예고는 7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군의 공식 성명서와 마르크스의 편지들은 그것이 반군 조직의 해체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파티스타 운동이 한걸음 나아가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자 멕시코 연방정부는 그 합법성 문제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위원회가 비합법적이라고 선언했다.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는 연방정부(gobierno federal), 주정부(gobierno estatal), 시정부(gobierno municipal)의 세 가지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유였다. ‘좋은 정부 위원회’를 하나의 자치정부로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표명하는 연방정부의 태도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듯하다. 이러한 태도는 반군 지역의 공동체와 EZLN측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부나 모든 정당들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무



관하게 원주민 공동체 스스로에 의한 자치정부를 구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좋은 정부 위원회’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까라콜이라는 건축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까라콜의 건축물이 마야 문명의 건축물 양식과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마야 고유의 것인 까라콜 건축물 양식 안에 ‘복종하면서 다스린다’는 ‘좋은 정부 위원회’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I.2. 까라콜의 상징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까라콜(Caracol)은 이전의 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 총사령부 본부였던 아과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를 대신하여 ‘좋은 정부 위원회’의 중앙 청사로 세워졌다. 기존의 아과스칼리엔테스를 폐쇄하고 지은 새 건물에 ‘까라콜’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원래 사파티스타 반군이 주둔하고 있던 각 지역에는 아과스칼리엔테스가 설치되어 원주민 저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다섯 개의 아과스칼리엔테스는 오벤틱(Oventik), 라 레알리단(La Realidad), 라 가루차(La Garrucha), 모렐리아(Morelia), 로베르또 바리오스(Roberto Barrios) 지역에 있었으며, 1995년 2월 정부군의 습격으로 파괴되었으나 재건되어 지난해 8월 ‘좋은 정부 위원회’가 들어설 때까지 유지되었다.<sup>11)</sup>

먼저 ‘아과스칼리엔테스’라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과스칼리엔테스는 중부지방의 작은 농촌마을인데, 사파티스타 반군의 본부 이름에 사용된 기원은 1910년대의 멕시코 혁명기에서 찾을 수 있다. 1914년 멕시코 전역의 혁명군들이 아과스칼리엔테스로 모여들었고 그 대표자들은 그곳에서 중대한 군사회의를 열었다. 그 군사회의에서 북부군 지휘관 판초 비야(Pancho Villa)와 남부

11) 까라콜 역시 그 다섯 지역에 지어져 아과스칼리엔테스를 대체하는 본부가 되었다.

군 지휘관 사파타는 ‘과달루페 계획’을 통해 정치적인 자유만을 주장하며 권력 획득을 꿈꾸던 카란사(Francisco Carranza)에 대응해 사파타의 ‘아얄라 계획’을 지키기로 합의하며 서로 연합했다. 그리고 최초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에우탈리오 구티에레스(Euralio Gutiérrez)라는 장군을 임시대통령을 선출했다(백종국, 308). 두 장군의 연맹 선언에 따라 원주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원주민의 토지가 멕시코 정부의 관할권이 아니라 원주민에게 속해 있음을 주장한 ‘아얄라 계획’은 다시 한번 확고해졌던 것이다. 사파티스타 혁명군은 멕시코 역사상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을 기려 두 연합 장군의 혁명정신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에서 EZLN 본부의 이름을 아과스칼리엔떼스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아과스칼리엔떼스’라는 명칭은 사파타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사파티스타 해방군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까라꿀’이라는 이름 역시 역사적인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멕시코 혁명기보다 더 오래된 마야 신화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까라꿀’ 본부는 ‘달팽이’라는 그 뜻에 걸맞는 건물 구조를 갖고 있다. 에이드리언 G. 길버트는 유카탄 반도의 마야 유적지 치첸 이차(Chichen Itza)에 보존된 까라꿀이라는 이름의 흥미로운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야 인들은 그들 고유의 달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건물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 역할을 했다고 한다.

[...] 그것은 까라꿀이라고 하는데, ‘달팽이’를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이 기묘한 구조물의 단면은 원형이며, 내부에 나선형 층계가 있어서 위층의 방으로 오르게 된다. 그래서 달팽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 상층 방에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이 창문을 통해 행성, 특히 금성을 관측했다고 알려졌다(길버트 & 코트렐, 157).

사실 사파티스타 반군 주둔 지역에 달팽이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총사령부의 건물이었던 아과스칼리엔떼스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

졌기 때문이다.

<그림 1: 치첸 이차의 까라꼴>



최초의 아과스칼리엔페스는 1994년 7월 전국민주주의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과달루페의 떼페약(Tepeyac)에 세워졌는데, 그 설계는 토홀라발(Tojolabal) 족 원주민 건축가들이 맡았다. 건물의 이름은 앞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멕시코 혁명 당시 사파타의 위업이 이루어진 곳을 기념해 ‘아과스칼리엔페스’라고 붙였다. 그런데 마야 인의 후예들이 28일 만에 지은 이 건물은 달팽이 또는 소라고둥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넓은 방청석과 무대가 있는 회의장이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소라고둥 모양을 닮았다는 사실은 가까이에서는 알아채기 힘들었다. 마르코스 부사령관도 토홀라발 족의 타초 사령관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아과스칼리엔페스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소라고둥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의장 건물 내부의 위쪽에서만 볼 수 있었다. 즉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야만 전체적인 조망이 포착될 수 있었다.

전국민주주의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한 기자가 아과스칼리엔페스

건물이 사파티스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냐고 묻자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소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때 그가 말한 소라는 높이 올라 가야만 시야에 들어오는 존재를 의미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만 온전히 실체가 바라다 보이는 그것은 “가난한 반란의 땅에 나선형을 그리고 있는 사파티스타 소라”(폰세 데 레온, 300)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토홀라발 족이 소라고둥 모양의 건물을 지은 것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보존되어온 구조물들의 형상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코스는 그 나선형 모양이 “들어오라고 권하기도 하고 나가라고 권하기도 하여 [...]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할 수 없”(301)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끝없이 이어져갈 사파티스타 투쟁의 신념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나가는 문과 들어가는 문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소라의 나선형 모양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뿔피리의 모양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아파스칼리엔테스의 모양이 뿔피리 나팔과 닮아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파스칼리엔테스의 도서관은 소용돌이 꼴의 시작과 끝이지만, 여기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입구가 없습니다. [...] 그런 거대한 소용돌이 꼴 고등에서는 도서관이 아파스칼리엔테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고, ‘조직의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아지트는 그것의 맞은편에 있는 끝이자 시작입니다. 나는 눈알을 굴려 거대한 소용돌이 꼴 고등을 바라봅니다. 모든 건축물이 이것을 중심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글에서 소리쳐 부르는’ 이 고등의 소용돌이 꼴 모양은 아마 특별한 인공위성에서나 봐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폰세 데 레온, 454).

이 인용문은 마르코스가 사파티스타 투쟁을 외부세계에 알려 함께 호응하고 연대하도록 하는 일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음파(音波)를 꼬리에 달고 있는 소라고둥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렇게 소라고둥 모양의 건물에 대한 사파티스타의 애착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함을 상징한다는 것과, 모든 이에게 연대를 호소하는

빨피리의 특성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좋은 정부 위원회’의 본부로 지어진 건물은 처음부터 ‘까라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아파스칼리엔떼스를 지었을 때는 그 건물 형태가 토홀라발 족의 건축술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라 모양이 되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사파티스타들의 직접적인 의도로 소라 모양으로 지어졌고 의도적으로 ‘까라꼴’이라고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 건물의 정식 명칭이 “인류를 위한 저항과 반란의 까라꼴(Caracol Resistencia y Rebeldía por la Humanidad)”임을 염두에 두면, 까라꼴에 부여된 의미가 더욱 쉽게 해석된다.

‘좋은 정부 위원회’ 본부 건물이 까라꼴로 불린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파티스타와 그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가 까라꼴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섯 개의 까라꼴에 붙여진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곧, “희망을 향해(Hacia la Esperanza)”, “희망 무지개의 심장(Corazón del Arcoiris de la Esperanza)”, “미래의 길(Camino del Futuro)”, “싹틀 새로운 씨앗(Nueva Semilla que va a producir)”, “세계에 나선 사파티스타의 중앙심장부(Corazón Céntrico de los Zapatistas delante del Mundo)” (“Chiapas: La Treceava Estela”, <http://www.ezlnaldf.org>)라는 다섯 개의 이름은 자신들의 긴 투쟁에 희망의 비전을 심기 위한 사파티스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자네들의 눈이 자네들의 등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오직 충분히 순환하면서 걸어가면 되네. 자네들이 자네들의 걸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자네들 자신에 이를 때까지. 자네들이 충분히 걷고 나서 자네들의 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설령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지라도 그때는 이제 다 걸어간 것이네(마르코스 2001, 153).

애너 캐리건은 사파티스타 운동이 “최초의 포스트모던 혁명”이라

고 표현한 적이 있다(폰세 데 레온, 701). 한편 까를로스 푸엔테스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포스트코뮤니스트 반란”으로 표현되기도 했다(Fuentes, 56). 푸엔테스의 말은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처음 봉기했을 당시 많은 멕시코 인들이 의구심 어린 눈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사파티스타 운동은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장식해 온 수많은 사회주의 혁명노선들과는 거리를 둔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파티스타 운동은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삶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라는 세 요소라고 본다. 정의는 “각자에게 걸맞는 가치를 되돌려주는 것”이고, 자유는 “그것이 어떤 길이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는 “다채로운 생각들이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한다(마르크스 2001, 94-95). 그리고 이 세 요소에 의해 완성되는 인간의 존엄성은 내부에서 우리나라 표출되는 것으로, 존엄하게 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자신과 더욱 나아질 수 있는 우리의 권리,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 이상에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존엄은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존엄하게 살지 않으면 존엄은 죽습니다. 존엄은 내부에서 솟아오르며,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존엄은 국경 없는 모국,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는 모국입니다.”(폰세 데 레온, 529)

그런데 그 투쟁은 신들이 빛은 옥수수 인간들이 그랬듯이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자기 자신들을 더 낮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쉽게 끝나지도 완료되지도 않는 투쟁이다.

언제 길이 끝날지 물으면서 지치고 피로해지지 말게나.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곳,  
바로 거기서 끝날 것이니... (마르크스 2001, 157)

안토니오 노인이 마르크스에게 건넨 이 말은 투쟁이 언제 끝날지, 언제 그 목표를 달성할지 계속 생각하느라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멀고 긴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멀고 긴 투쟁의 승패 여부는 단지 사파티스타들과 치아파스의 원주민 공동체에게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예를 들어, 1997년 12월 22일 백색 경비대에 의한 악떼알(Acteal) 만행이 저질러지기 전 악떼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사파티스타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만일 그들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시민사회로서 그것에 저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완충 역할을 하는 이 보호막이 없다면 정부가 사파티스타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공격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지요(폰 세 데 레온, 742).

결국 이 무방비 상태의 보호막은 무장한 경비대에 의해 갈가리 찢겨졌지만 그 보호막이 더 두터웠다면, ‘완충지대’가 더 넓었다면 악떼알 학살은 저질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헤리 클리버가 제기하듯이 사파티스타 투쟁의 승패는 그에 호응하고 연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의 생활공간에서 사파티스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의지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사파티스타 반군이 말살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단순히 그들의 군사력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찾는 데에는 존 홀로웨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가 판단하기에도 사파티스타의 진정한 힘은 1994년의 봉기에 대해 멕시코 국내 및 나아가 전 세계가 보여준 이례적인 공감과 공명에 놓여있는 것이다(홀로웨이, 315).

이것은 만일 사파티스타 반군 지역 외부의 국제사회가 반군들이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인가, ‘좋은 정부 위원회’가 어떤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고 단순히 호기심 어린 태도로만 바라본다면, 그 타성에 젖은 나태함 때문에 사파티스타 운동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한 것이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언론의 지면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연대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부록: 사파티스타 연표

- 1983년 마르코스를 비롯한 민족해방군(FLN) 출신 활동가들이 치아파스에 도착. 11월 17일 원주민 3명, 메스티소 3명과 더불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창설.
- 1986년 EZLN이 처음으로 원주민 공동체에 들어가 지역 지도자들을 초청함.
- 1992년 살리나스 대통령이 헌법 제27조 수정하여 75년간의 토지개혁에 종지부를 찍고 에히도의 사유화 허용함.
- 1993년 사파티스타 공동체가 EZLN의 군사적 공세 승인하고, 투쟁을 이끌어갈 원주민 비밀혁명위원회-총사령부(CCRI-CG)를 구성
- 1994년 1월 1일 NAFTA 발효. 3000명의 EZLN이 무장봉기하여 여섯 도시와 농장들을 점령. 출동한 연방군에 의해 원주민 공동체 파괴되고 145명의 원주민 사망. 군사적인 진압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멕시코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시위. 1월 12일 휴전 선언.
- 1994년 8월 사파티스타가 정글의 본부 아파스칼리엔페스에서 전국민 주주의 대표자회의 개최.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 당선.
- 1995년 2월 사파티스타 반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군의 대대적인 공습. 2만 명의 캄페시노들이 쫓겨나고 아파스칼리엔페스 파괴.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와 문화 붕괴.
- 1995년 4월 평화회담 재개.
- 1996년 2월 토지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원주민 자치권, 원주민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합의사항 담은 산 안드레스 협정 서명.
- 1996년 12월 세디요 대통령이 산 안드레스 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함.
- 1997년 7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당표 획득. 치아파스의 분쟁지역에서는 기권이 80%.
- 1997년 12월 PRI와 연계된 준군사 조직이 악테알 공동체의 교회 공격하고 원주민 45명 학살. 관련된 지역관료들과 군 장교들



- 심판 면함. 이후 정부는 EZLN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 시작.  
1998년 4월 대규모의 정부군이 사파티스타 자치 공동체에 침입해 공동체 지도자들 체포.  
1999년 3월 원주민 권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상담회 개최. 5천 명의 민간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 전역에 걸쳐 일주일 동안 대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  
1999년 8월 라칸돈 정글의 사파티스타 포위하기 위해 정부군이 도로 연결점인 마을 점령.  
2000년 7월 보수적인 PAN당의 비센테 폭스 대통령 당선.  
2001년 2월 15일간의 대장정과 멕시코시티 헌법광장에서 20만 시민과 함께 대규모 집회. 원주민 권리 보장하는 법률 입안과 평화 회담 촉구.  
2003년 8월 '좋은 정부 위원회' 발족.

## Abstract

Este estudio trata de la filosofía fundamental del Movimien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El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se estableció en 1983 y pronunció en público su establecimiento en el 1o de enero de 1994. Éste también es el día de efectuación de TLCAN(NAFTA).

Los estudios anteriores sobre el movimiento Zapatista han puesto sus focos en la significación político-económica del movimiento o en su contexto socioeconómico e internacional. Este estudio, a diferencia de ellos, intenta dedicarse a las bases filosóficas del movimiento, que es un tema que se ha dejado a un lado.

La mayoría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 Chiapas descienden de los mayas y la búsqueda a la dignidad humana - justicia, libertad y democracia -, la meta del movimiento Zapatista, también tiene su base

fundamental en el pensamiento maya tradicional. Esto quiere decir la armonía entre la cosmovisión de la comunidad indígena Maya y el movimiento Zapatista. Se pueden explicar en este contexto tanto el establecimiento de 'Juntas de Buen Gobierno' del año pasado, un gobierno propio para conseguir sus derechos, como el sentido mitológico de su sede 'Caracol'.

Key Words : EZLN, Filosofía Maya, Votán-Zapata, 'Juntas de Buen Gobierno',  
Caracol /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마야철학, 보탄-사파타, '좋은  
정부 위원회', 까라콜

논문투고일자: 2004. 07. 15

심사완료일자: 2004. 08. 04

게재확정일자: 2004. 08. 16

## 참고 문헌

- 리샤르 그레망(1998), 「‘위험한 지름길’ 또는 사파티스타의 각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New Socialist*, 1998년 6-7월, <http://www.newsocialist.org>
- 마르코스(1995), 『분노의 그림자: 멕시코 한 혁명가로부터 온 편지』, (윤길순 역, 1999), 삼인.
- \_\_\_\_\_ (2001),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 다빈치
- 박병규(2002), 「사파티스타 투쟁의 역사적 의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3, No. 2. pp. 117-129.
- 백종국(2000),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 베르트랑 데 라 그랑쥬 & 마이테 리코(2003), 『마르코스: 21세기 게릴라의 전설』, 휴머니스트.
- 신정환(1999), 「마르코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사이버전쟁」, in 이 성형 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pp. 352-372.
- 애너 캐리건, 「치아파스, 최초의 포스트모던 혁명」, in 폰세 데 레온,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 pp. 701-749.
- 에이드리언 G. 길버트 & 모리스 M. 코트렐(1996), 『마야의 예언』, 넥서스.
- 유상준(2003), 「아우토노미아와 한국 민중운동/ 사파티스타 활동가 인터뷰」, 디지털 말, 2003년 11월 7일, <http://www.digitalmal.com>
-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 \_\_\_\_\_ (2001a), 「중남미 원주민 저항운동」 *중앙일보*, 2001년 4월 25일.
- \_\_\_\_\_ (2001b), 「총 대신 ‘넷’으로 서구와 게릴라전」 *중앙일보*, 2001년 4월 25일.
- 존 S. 헨더슨(1999), 『마야 문명』, 기린원.
- 존 홀로웨이(1998), 「권력의 새로운 개념」, in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의 저항』, 한울, pp. 291-322.
- 폴 킹스노스, 「사파티스타 농민운동 - 자치를 위한 투쟁」(진보네트워크 센터 “인권운동연구소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코너), <http://>

- [cham.jinbo.net/maybbs](http://cham.jinbo.net/maybbs)
- 해리 클리버(1898), 『사빠띠스따. 신자유주의, 치아빠스 붕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갈무리.
- 후아나 폰세 데 레온 엮음(2001),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윤길순 역), 해냄
- 「멕시코 반군 사파티스타 정치력 강화」, 연합뉴스, 2003년 8월 11일.
- 「멕시코 반세계화 운동 연구자, 기록자가 말하는 ‘사파티스타 투쟁’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겨레 21, 제480호, 2003년 10월 23일.
- 「사파티스타 붕기 10주년 전세계 기념행사」, 연합뉴스, 2003년 11월 12일.
- 「카메라에 담은 사파티스타 해방운동의 10년 역사」, 민중의 소리, 2003년 10월 12일.
- 「한국에 사파티스타 운동을 알리러 왔다」, 오마이 뉴스, 2003년 10월 10일.
- Benjamin, Thomas(2000), “A time of Request: History, the Maya Revaval, and the Zapatista Rebellion in Chiapas”,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Vol. 105, No. 2, 2000, Apr.  
<http://www.historycooperative.org/journals/ahr/105.2/ah000417.html>
- Fox, Jonathan(1994), “The roots of Chiapas”, Boston Review. A political and literary forum, 1994, April/May, <http://www.bostonreview.net/BR19.2/fox.html>
- Fuentes, Carlos(1994), “Chiapas: Latin America's first post-communist rebellion”, *New Perspectives Quarterly*, Vol. 11, Spring, pp. 54-58.
- Le Bot, Yvon(1997), *Subcomandante Marcos. El sueño Zapatista*, México: Plaza & Janés.
- Michel, Guillermo(1998), *La guerra que vivimos*, México D.F.: Univ. Autónoma Metropolitana.
- \_\_\_\_\_ (2001), *Votán-Zapata. Filósofo de la esperanza*, México D.F.: Rizoma.
- Morris, Walter F.(1987), *Living Maya*, New York: Harry N. Abrams Publishers.
- Nash, June(1970), *In the eyes of the ancenstors. Belief and behavior in*

- a Mayan community*, Illinois: Waveland Press.
- Paz, Octavio(1994), “The media spectacle comes to Mexico”, *New Perspectives Quarterly*, Vol. 11, Spring, pp. 59-60.
- Romero Jacobo, César(1994), *Los Altos de Chiapas. La voz de las armas*, México D.F.: Planeta.
- \_\_\_\_\_ (1994), *Marcos. ¿un profesional de la esperanza?*, México D.F.: Planeta
- Centro de Medios Independientes-Chiapas, *Boletín* No. 2, 13 de Agosto, 2003, México, <http://chiapas.mediosindependientes.org>
- “Chiapas: La Treceava Estela, 1<sup>a</sup>-6<sup>a</sup> parte”(Carta EZLN), 23-28 de julio, 2003, <http://www.ezlnaldf.org/comunica>
- “Cambios en funcionamiento interno y en la relación con la sociedad civil”(Comunicado del CCRI-CG), 19 de julio, 2003, <http://www.ezlnaldf.org/comunica/030719.htm>
- “Proclama”, 9 de agosto, 2003, <http://chiapas.mediosindependientes.org>